약도 취향 따라 골라 먹는다… 제약업계, 제형 차별화 경쟁

폼·겔·액상 등 다양한 제형 시도
휴대성·복용 편의성 등 선호 반영
경쟁력 강화하고 신규 소비자 확보

국내 제약업계가 일반의약품(OTC)의 복용 및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한 다양한 제형을 잇달아 선보이며 소비자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약효라는 기본기뿐만 아니라 휴대성, 섭취 방식, 사용감 등 디테일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형을 세분화하고 브랜드 라인업을 확장하는 추세다.

제형 다변화 전략은 소비자에게 라이프스타일과 선호도에 따른 맞춤형 선택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제약사 입장에서는 검증된 메가 브랜드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대약품의 탈모증 치료제 '마이녹실'은 한국인 임상시험을 통해 확인된 92.9%의 탈모 증상 개선 효과에 더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다채로운 제형 라인업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유한양행 '마그비맥스'


현대약품 '마이녹실'

마이녹실은 조밀한 거품 입자로 흘러내림이 적고 사용 후 결정이나 백탁 현상이 남지 않는 '마이녹실폼'을 필두로, 국소 부위에 바르기 쉬운 '마이녹실겔', 두피에 직접 분사하는 스프레이형 '마이녹실액', 경구용 치료제 '마이녹실 에스캡슐'까지 폭넓은 제형을 갖췄다. 현대약품은 지속적인 디지털 광고 캠페인을 통해 각 제형의 특장점을 알리며 소비자 접점을 넓히고 있다.

감기약과 진통제 시장에서도 제형 혁신이 두드러진다.

동아제약의 장수 감기약 브랜드 '판피린'은 이부프로펜을 주성분으로 한 국내 최초의 액상형 스틱 감기약 '판피린타임 이부프로펜' 3종을 출시하며 제형 차별화에 나섰다. 기존 병 타입 액상제인 '판피린큐'에 더해 따뜻한 물에 차처럼 타 마시는 '판피린타임 나이트플루 건조시럽', 물 없이도 털어 넣을 수 있는 파우더형 '판피린타임 산제' 등 제형을 세분화해 복용 환경에 따른 선택권을 넓혔다.

종근당 역시 대표 감기약 브랜드 '모드콜' 시리즈를 통해 제형과 성분 세분화 전략을 적극 펼치고 있다. 액상형 연질캡슐로 체내 흡수율을 높여 빠른 약효를 내는 '모드콜S' 시리즈에 이어, 물 없이 간편하게 짜 먹을 수 있는 스틱형 액상 감기약 '모드콜플루' 라인업을 선보이며 휴대성과 복용 편의성을 한층 강화했다.

영양제 및 피로회복제 분야에서도 물 없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액상·스틱 제형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유한양행의 대표 마그네슘 브랜드 '마그비'는 1일 2캡슐로 고함량 마그네슘을 섭취할 수 있는 연질캡슐 제품 '마그비맥스'와 함께, 유기염 마그네슘(글리세로인산마그네슘 1200mg)을 담아 물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액상 제제 '마그비스피드'를 선보이며 복용 편의성을 높였다.

이 밖에도 동국제약의 정맥순환 개선제 '센시아'나 인사돌 등 기존 정제 위주였던 중장년층 타깃 일반의약품 시장에서도 복용 부담을 줄인 액상 파우치나 츄어블(씹어 먹는) 제형 등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약효 중심의 단일 제형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바쁜 현대인의 생활 패턴과 개인별 복용 선호도를 반영한 제형 세분화가 필수 생존 전략이 됐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형 개선과 라인업 확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유한양행, 만성신장병 신약 임상 1상 승인

염증 반응 감소, 섬유화 과정 억제
신장 손상·질환 진행 속도 늦춰

유한양행은 만성신장병 (CKD) 신약으로 개발 중인 YH34180의 임상1상 시험계획(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6일자로 승인받았다고 15일 밝혔다.

YH34180은 경구 투여가 가능한 저분자 화합물로,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고 섬유화의 발생 및 진행을 억제하여 만성신장병 환자의 구조적·기능적 신장 손상을 완화하고 질환의 진행과 관련 합병증의 발생을 지연시키는 것을 목표로 개발 중인 신약후보물질이다.

전임상 효력시험에서 YH34180은 경구 투여로 다양한 마우스 모델에서 유의한 신장 보호 효과를 확인했다. YH34180 투여군에서는 신기능 지표가 개선되고 신장 조직의 섬유화와 손상이 감소하였다. 또한 임상에서 승인된 만성신장병 치료제와의 병용 시 추가적인 개선 효과도 확인했다.

이번에 승인받은 연구는 YH34180을 사람에게 처음 투여하는(First-in-human) 임상 1상 시험으로, 건강한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YH34180의 안전성, 내약성, 약동학(PK) 및 약력학(PD) 특성을 평가하고, 기존 표준치료(SOC)와의 병용 투여 시 안전성과 약동학(PK) 특성을 함께 평가할 예정이다.

만성 신장병 치료제로는 레닌-안지오텐신계 (RAS) 차단제, SGLT2 억제제, 무기질코르티코이드 수용체 길항체 (MRA), GLP-1 수용체 작용제 (GLP-1 receptor agonists) 가 있다. 하지만 잔여 염증 및 섬유화 과정이 여전히 미충족 수요로 남아있다. YH34180은 염증 및 섬유화 과정에 관여하는 경로를 조절함으로써 만성신장병의 미충족 의료 수요를 해결할 새로운 치료적 접근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열홍 유한양행 R&D 총괄 사장은 "유한양행 연구소에서 기존 만성신장병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후보물질을 도출하였으며, 수년간 전임상 개발에 집중한 결과 성공적으로 임상 개발 단계에 진입하게 됐다" 며 "YH34180은 만성신장병진행의 주요 병태생리인 염증 및 섬유화 경로를 조절하는 기전으로 개발되었으며, 항염증 및 항섬유화 효과를 통해 신장 손상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곧 시험대상자 모집을 개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동아에스티 비만 신약, 요산 감소 효과 확인

체중 13.5%·간 지방 68% ↓

동아에스티의 미국 관계사 메타비아는 개발 중인 신약 후보물질 DA-1726이 기존에 확인된 체중 및 간 지방 감소 효과에 이어 혈중 요산 수치에서도 유의한 감소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DA-1726 임상 1상 Part 3B의 추가 중간분석 결과에 따르면, DA-1726을 16주간 투여한 참가자들의 혈중 요산 수치는 위약 대비 1.47mg/dL 감소했다.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DA-1726은 동아에스티가 메타비아에 기술수출한 신약 후보물질로, GLP-1과 글루카곤 수용체에 동시에 작용하는 옥신토모듈린(Oxyntomodulin) 유사체다. 식욕 억제와 에너지 소비 증가를 통해 체중 감소를 유도한다.

임상 분석 결과, DA-1726 투여군의 평균 혈중 요산 수치는 투여 전 5.89mg/dL에서 109일째 1.02mg/dL 감소했다. 반면 위약군은 투여 전 4.80mg/dL에서 0.45mg/dL 증가해 두 군 간 변화량 차이는 1.47mg/dL로 나타났다.

특히 임상 참가자들의 평균 요산 수치가 투여 전부터 정상 범위에 있었음에도 유의한 감소 효과가 관찰됐다. 요산은 체내 퓨린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혈중 요산 수치 상승은 간 지방 축적과 인슐린 저항성, 알코올 섭취 등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메타비아는 동일 임상 중간분석에서 DA-1726 투여 후 위약 대비 간 지방이 68.1%, 체중이 13.5%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당화혈색소(HbA1c) 역시 위약 대비 0.24%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임상 시작 당시 지방간이 확인된 DA-1726 투여자 5명 모두에서 109일째 자기공명영상 기반 간 지방 측정 지표인 MRI-PDFF가 5%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세경 기자

SK바이오팜, '세노바메이트' 日 상륙… 동북아 시장 공략 확대

세계 2위 일본 뇌전증 시장 진출

SK바이오팜은 일본 파트너사인 오노약품공업이 뇌전증 혁신 신약 '세노바메이트(일본 제품명:에키스코푸리)'의 일본 내 판매를 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출시는 지난 9월 일본 후생노동성(MHLW)의 신약 허가 이후 약 두 달 만에 이뤄졌다. 세노바메이트는 올해 3월 중국에서 판매를 시작한 데 이어 11월 한국과 일본에서도 잇따라 출시되면서 한·중·일 동북아 3개국에서 모두 판매를 시작하게 됐다.

일본은 미국에 이어 단일 국가 기준 세계 2위 규모의 뇌전증 시장으로, 약 100만 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오노약품공업이 일본에서 출시한 세노바메이트는 부분발작 환자[3]를 대상으로 하는 12.5mg, 50mg, 100mg, 200mg 정제다.



세노바메이트(일본 제품명:에키스코푸리)

세노바메이트는 기존 항발작제 치료에도 발작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한국·중국·일본의 성인 부분발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아시아 임상 3상(study 035)에서 유효성을 입증했다. 특히 6주 유지기간 동안 완전 발작 소실(Seizure Freedom)을 달성한 환자 비율은 세노바메이트 100mg군 12.4%, 200mg군 30.1%, 400mg군 52.4%로, 위약군 2.6% 대비 높게 나타났다. 세노바메이트 투여군에서 가장 흔하게 (20% 이상) 나타난 이상반응은 어지러움과 졸음이었다.

이번 임상 결과는 뇌전증 치료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완전 발작 소실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기존 치료로 발작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일본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K바이오팜은 2020년 10월 오노약품공업과 일본 내 세노바메이트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출시를 계기로 일본 내 판매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현지 매출에 비례한 로열티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세경 기자

스타벅스, 연말 홀케이크 예약 시작

내달 19일부터 수령 가능

스타벅스는 다음 달 11일까지 사이렌 오더를 통해 홀케이크 사전 예약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케이크는 12월 19일부터 27일까지 예약 당시 지정한 매장에서 수령할 수 있다.

이번 라인업은 눈사람 모양의 '조선델리 위시 스노우맨 케이크', 베어리스티를 크리스마스 오너먼트로 표현한 '트리 베어리 오너먼트 케이크', 헬로키티를 활용한 '헬로키티 굴뚝쿠헨' 등 캐릭터를 활용한 제품이 특징이다. 트리 베어리 오너먼트 케이크 구매 고객에게는 키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정판 오너먼트를 제공한다.

여럿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제품도 마련했다. 바스크 치즈 케이크에 딸기 콩포트를 더한 '스노우 딸기 치즈 케이크'와 기존 시그니처 제품인 '딸기 촉촉 초콜릿 생크림 케이크'를 홀케이크로 선보인다.



스타벅스 홀케이크

/신원선 기자 tree6834@